

모든 것이 부처님 보살핌

서용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랑스런 군복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큰일났네’ ‘큰일났다’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일을 겪었을 때나 쓰는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큰일났다고 하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정말로 큰일을 낼 수 있으니 그 마음부터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당 호국비호사에서 외람되이 사자좌에 올라 젊은 병사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의식을 행하며 군포교에 뛰어들어 어느새 5년, 매일 두 곳의 군법당에 3~4번씩 찾아 나섰더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전법의 보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나는 사실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30대까지 세상은 하나님에 주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했다.

그러던 중 시절인연이 닿아 불교방송을 만났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택시를 타고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던 중 들려온 법음이 내게 한 줄기 충격으로 다가왔을 뿐.

나름대로 개신교 신자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법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불연이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정강생처럼 매일매일 방송을 듣고, 불음을 들으며 책을 사 읽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순서가 틀린 듯 했다. 어찌 바다의 넓이만 재고 있을뿐 깊이는 모르고 있듯 하여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워보고 싶어진다.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포교사 자격까지 얻게 된 후에는 부부나 존자의 뒤를 잇고자 군포교에 뜻을 두었다.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던 2005년 9월이었다. 문득 100일기도가 하고 싶어 내 생전 처음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 108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 생애에서 그렇게 기쁜 날도 없었다.

그렇게 군대에서, 법당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내가 ‘큰일났다’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병사들에게 법문으로 강조한지 몇 주 후였던가, 나에겐 정말로 ‘큰일날 뻔’ 한 사건이 생겼다.

그 날은 우리 집 큰아들이 회사를 옮겨

만 불길한 마음 간신히 억누르고 119에 전화해 위치와 차번호 그리고 상황을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나도 허둥지둥 집 밖을 나와서는 창동역 주차장에 달려갔다. 공장 관리 사무실로 뛰어가 상황을 말하고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넓은 주차장에서 우리 아이의 차를 찾기 시작했다.

긴급 출동한 재난구조대원은 찾아봐도 없으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며 인근에서 교통사고 났는지 수배 하고는 돌아가겠다고 하고, 직원들도 접촉사고나 사람들이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은 보

개신교 믿었으나 불교방송 듣고 개종 군포교하며 전법의 보람으로 하루 하루 아들 사고때 가피 얻고 믿음 더 강해져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던 200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창동 주차장인데 119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오더니 끊어지는 것이다. 다급히 불러보아도 다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온갖 불길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제일 의문인 것이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창동 주차장에 있는가’였다. 갑자기라도 걸려서 일찍 퇴근중인가? 그러나 구급차는 왜 불려달라는 것일까?

짧은 시간 동안 온갖 나쁜 생각이 스쳐지

지 못하였다고 했다. 참으로 난감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 행동을 하여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좀 더 찾아보면서 대원들을 설득했다.

바로 그때 이야기를 나누던 그 대원이 소리를 쳤다.

“오, 아드님 차가 저기 있네요.”

대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눈에 익은 우리 아이의 차가 있었다. 달려가 문을 확 열자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도 미동도 없이 운전석 의자가 반 넘게 제쳐있는 상태에서 반듯하게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다.

휴대폰과 안경, 신발이 차 바닥에 굴러 떨어져있고 오른쪽이 축 늘어뜨려져 있었



그림 · 문병성

다. 대원들이 달려들어 구급차에 옮겨 신고 산소마스크를 채우고는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어둠이 깔린 대로변의 혼잡한 차 사이사이로 내달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생각만 들었다. 도저히 추리가 되지 않고 내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나의 입장이 이렇게 두터운 것일까 싶었다.

응급실에 누운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깜빡이며 스치는데 아이가 ‘아버지 물 좀 주세요’라고 했다. 이때의 감격, 눈물, 기쁨 어찌 필설로 이어지랴. 그때가 8시쯤 된 것 같다.

이날 아들은 새 직장에서 연봉과 근무기간을 계약하는 날이라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왔다. 차를 주차하고는 감기기운이 조금 있어 약 한 병을 먹었는데 하도 피곤하고 졸려서 잠깐만 쉬고 가자고 하는 의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시동을 켰었다.

밀폐된 공간, 내리쬐는 햇볕의 열기에 차 안 온도가 오르고 산소도 부족한 상태에서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10여 시간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있자니 눈뜰 기운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이것이 꿈인가 잠결인가, 죽음과 삶이

왔다갔다 하는 참나에 어디선가 맑고 시원한 바람 한줄기가 ‘휘익’하며 얼굴로 지나더라. 그런데 휴대폰이 어떻게 손에 쥐어져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뒤늦게 도착한 아내는 아들을 부여잡고 “이 녀석아! 내가 나보다 먼저 가려했느냐”며 슬피 울었다. 나도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잊지 못하였다.

이제 불교에 입문한지 30년! 마술버섯 500원이 아까워 걸어 다니면서도 군법당이라면 자다가도 발떡 일어나는 내게,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 잘하면 공신도 되겠네’ 하면서 밋밋하게 놀려대곤 했다.

나는 아들이 살아난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100일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군법당에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누가 뭐라해도 한줄기 바람이라는 형태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내 아들을 살려 주었다고 확신한다.

그 일로 인해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내 앞에 희망이 있다면 뒤쪽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있으며, 오른쪽에 삶이 있다면 왼쪽에는 죽음의 이두움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님 만세!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례자,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장 → 입급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 (납본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팀
- 판권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개고가 많지 않아 인평판매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동아사
- 주 지: 지법(한재환)
- 주 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춘리 229-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전통범음범패(바리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총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리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일	강의 내용	비고
1 학기	2006년 3-6월	기초: 목탁차림법, 삼귀의례, 사중서원 원수경, 도량역, 종송 등 예법: 왕수해례, 사경례, 화장례(오봉화례), 각단예법 범: 삼보통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서: 관음시서, 상동명반, 화엄시서 구별시서, 장의관,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제사의식
	7-9월	상주권관(범음범패) 왕왕, 동계, 삼귀의, 화장계, 고항계, 개계, 설행계, 복향계, 사방찬, 도량계, 향회계	대장전법, 찬수바라 도량계(비바춤), 외..... 범음-원패
2 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행범음) 시연재, 대량재, 관음재, 중오계 신중작법(39위) 상단관공 및 시서 삼보통칭, 지장칭, 시서회향	만주, 바리차 관음바라, 화의집 바리 찬수니암(범음) 시다래니 바리 온상계, 가지계 (범음) 화왕, 축원화왕
	2007년 2월	시연의 준비 전제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법고 공역계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06년 3월 9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한국불교대학교 대구경북총무원 설립전
6.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한국불교 대학교 대구경북총무원
8. 접수기간: 2006년 3월 9일까지
9. 문 의 처: 053)622-3702

한국불교 대학교 대구경북교구 총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수업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 1번: 목통, 목발, 신경과민, 안압고, 두통, 어지럼증, 두통, 목덜미가 뻣뻣함
- 2번: 어깨, 목, 간장, 위장, 신장, 비장, 위장장애, 소장
- 3번: 오장, 관장, 위장, 신장, 비장, 위장장애, 소장
- 4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5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6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7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8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9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10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11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12번: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특징 속성

수료자는 본협회, 단종 수료증 부여 (신직은 약간임)

수련안내

- 주 간 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딱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랙틱, 명상 활용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랙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 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후대폰: 011-804-1748